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Parenting Stress Scale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강희경**

Dept. of Social Welfare, Seoil College
Full-Time Lecturer, Kang, Hee-Kyu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arenting Stress Scale that measures the day-to-day difficulties entailed in parenting for school-aged children. First, sixty seven items were collected as a baseline. Some of these items were pooled from existing parenting stress scales (Abidin, 1990; Kim & Kang, 1997), and the rest were generated based on interviews with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Secondly,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and Cramer's V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goodness-of-fit of the items. Twenty four items were selected from this step.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on these 24 items revealed two dimensions of this new Parenting Stress Scale, namely, 'school-related parenting stress' and 'general everyday life stress'. A test of construct validity also showed that this scale has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Key Words :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Scale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school-related parenting stress),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general everyday life stress)

1. 서론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은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Laster, 1981). 모든 가족은 생활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ky & Hanson, 1991). 가족생활에 있어 자녀의 출산, 학교입학과 같이 중요한 생활사건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으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enaghan, 1983).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 양육스트레스란 구체적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고성혜, 1994).

따라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학부모됨이라는 전환과정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의 원도구(Abidin, 1990)를 그대로 변안하여 실행하였거나,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라는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김기현·강희경, 1997)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와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자녀의 학교 입학이라는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스트레스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양육의 실제인 것으로 부각한 아버지의 역할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자녀양육에 아버지도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어, 더 이상 아버지는 부수적인 자녀양육의 보조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동등한 책임을 갖는 공유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 본 논문은 2002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강희경(E-mail : khkyung@seoil.ac.kr)

따라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 역시 참여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공식 교육체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학동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들에게 과중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조기유학의 열풍,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은 사회문제까지 자주 언급되어진다.

이렇듯 자녀양육상의 새로운 역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학동기로의 진입은 부모에게 유아기와는 다른 부모역할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어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와서 자녀교육이라는 부담감을 안게 되는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가 반영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으며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자녀의 학교 입학으로 인해 한국의 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와 역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동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동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학동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인 스트레스 영역 외에 가족 생활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별적 정의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안지연, 1992; 장병욱, 1986; 전경아, 1991)으로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으로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은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Laster, 1981).

1990년대 이후 수행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김희조, 1994; 박해미, 1994; 배인숙, 1993; 송주미, 1992)에서는 대부분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도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조기 진단, 부모 교육이나 심리 치료 등과 같은 개입의 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대규모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는 아동영역 47문항, 부모영역 54문항, 그리고 중요한 생활사건의 경험 유무를 묻는 생활스트레스 1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세 하위영역에서 양육기능과 보다 밀접한 것은 부모영역으로, 이 영역은 다시 우울, 애착, 역할의 제한성, 유능성,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도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120개라는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라는 점에서 응답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많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그 구성요인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그리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 양육행동으로 유발되는 신체적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으로 설명되어진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자녀를 타인양육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취업모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본 도구는 어린 자녀, 특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라는 구체적 집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해주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은, 자녀가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전의 부모역할 외에 학부모됨이라는 새로운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자녀양육에서 일부나마 힘을 더는 한편으로 새롭게 학부모역할이 시작되면서 학부모-교사 관계 정립 등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그 동안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 관계에 가정 밖의 공간에서 자녀가 새로 관계를 맺게 된 또래, 그리고 교사 등 제 3자가 개입되면서 그 부모-자녀 관계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까닭에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윤기영, 1998).

한국 부모가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언급되어지는 높은 교육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근대 이후 한국가족의 교육열은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발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교육열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자질양성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교육열은 교육제도 및 사

회구조 속에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만큼 가열화 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가족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가족에 있어 자녀의 교육은 자녀 자신과 부모의 공동적 관심사이며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는 과제가 되므로, 자녀 개인만이 아닌 가족의 교육열로 묘사되는 것이다(김경신·김명자·박혜인·유영주·유은희·윤종희·이미숙, 1994).

이상의 논의를 통해볼 때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은 유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학교라는 공식적 교육체계로의 진입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정립과 적응, 학교 환경에의 적응,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교육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동기 발달 특성 역시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단한 보살핌과 양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부담감 같은 제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2271)

변인	내용	빈도(%)	평균(SD)
연령	아버지	594(48.4)	40.73(4.06)
	어머니	633(51.6)	39.56(4.13)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95(32.8)	
	대졸이상	399(67.2)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282(44.5)	
	대졸이상	351(55.5)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62(10.6)	
	사무직	270(46.0)	
	판매·근로직	51(8.7)	
	자영업	122(20.8)	
어머니의 직업	기타	82(13.9)	
	전업주부	416(66.5)	
	전문·관리직	47(7.5)	
	사무직	57(9.1)	
자녀의 성별	판매·근로직	24(3.8)	
	자영업	59(9.4)	
	기타	23(3.7)	
	남	573(46.7)	
녀	654(53.3)		
출생 순위	첫째	787(64.2)	
	둘째	388(31.6)	
	셋째이하	52(4.2)	
	가족의 수입	200만원이하	281(24.5)
201-300만원	334(29.1)		
301-400만원	212(18.5)		
401-500만원	199(17.4)		
501만원이상	120(10.5)		

주1)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로, 서울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한 뒤 강북지역에서 2개교, 강남지역에서 1개교, 총 3개교를 편의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별로 각 학년(1-6학년)에서 한 개반씩 선정하여, 담임교사에게 협조를 의뢰하고, 아동을 통하여 아버지용 700부, 어머니용 700부 총 1,400부를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2002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16일 까지 이루어졌다. 수거된 질문지는 총 1,259부였으며, 이중 기체가 부실한 32부를 삭제하여 총 1,227부(아버지 594부, 어머니 63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73(SD=4.06)세 였고, 어머니는 39.56(SD=4.13)세였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 집단의 경우 대졸 이상이 67.2%, 어머니 집단은 55.5%여서 비교적 고학력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364.95만원(SD=197.07)이고, 아버지의 직업 분포에 있어서도 사무직(46.0%)과 전문·관리직(10.6%)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본 연구대상자는 중류계층이 많이 표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아가 46.7%, 여아가 53.3%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9.96세(SD=1.68)였다(1학년 11.7%, 2학년 14.0%, 3학년 15.5%, 4학년 17.5%, 5학년 21.4%, 6학년 19.9%). 대상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64.2%, 둘째 31.6%, 셋째이하가 4.2%여서 절반 이상이 첫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가 질문에 응답을 할 때, 학동기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동기 진입에 따른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자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동기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도구의 문항(김기현·강희경, 1997; Abidin, 1990)과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와의 면접과정을 통해 수집된 문항으로 총 67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통하여 모두 50문항을 구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에서는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영역 문항에서 선정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3세 이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학동기 자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삭제하여 모두 12문항을 선정하였다.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에서는 부모영역 중에서 38문항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행 측정도구에서는 50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미처 감안하지 못한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0명(아버지 8명, 어머니 12명)이었으며, 해당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1명, 여아가 9명이었으며(1학년 5명, 2학년 4명, 3학년 3명, 4학년 4명, 5학년 2명, 6학년 2명).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연구자는 면접 참여자에게 “학동기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구체적 양육상황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과정을 통해 추출된 문항은 먼저 수집된 50문항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21문항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71개 문항이 선정되었고, 본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71문항이 학동기 자녀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문장인가를 판정하기 위해 아동학 및 가족학 전문가 3인에게 평정하도록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거나 의미상 중복된다고 지적한 문항 4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67문항이 선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문항양호도 분석을 하기 위해 χ^2 검증과 Cramer의 V계수를 구하였다. 변별도는 응답 총점 분포를 기초로 하여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을 선정 한 후, 각 문항별 반응 빈도가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을 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Cramer의 V계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모델은 주요인분석을,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법인 Promax를 실행하였으며, 추출요인 결정은 Scree 검증과 설명변량을 참조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구성된 최종 문항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Goldberg(1980)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점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직률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양호도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해 구성한 67문항이 변별도 면에서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

증하기 위해 χ^2 검증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표2>는 χ^2 값과 Cramer의 V계수가 만족스러운 변별도 기준에 의해 추출된 26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2> 문항양호도

문항	χ^2 값	Cramer's V	문항	χ^2 값	Cramer's V
13	44.67***	.67	53	220.14***	.60
14	98.09***	.43	54	244.68***	.64
17	203.68***	.58	55	191.64***	.56
31	216.94***	.60	56	235.30***	.63
37	216.47***	.60	57	231.40***	.62
38	253.93***	.65	58	173.99***	.54
41	221.17***	.61	59	266.06***	.66
43	285.49***	.69	61	247.95***	.64
44	288.81***	.69	62	299.48***	.71
49	245.04***	.64	64	240.58***	.63
50	241.73***	.63	65	205.45***	.58
51	153.19***	.54	66	120.09***	.45
52	234.21***	.62	67	47.87***	.28

***p<.001

주2) 문항번호는 원 질문지 번호임

2. 타당도

문항양호도 검증을 통해 추출된 26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모델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현실적으로 자료수집과 측정상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Eigen값과 Scree 테스트, 그리고 설명변량을 참조하였다. 그 결과, 2요인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2요인 방안을 채택하였다.

회전방법은 요인 간의 상관이 없다는 이론적 근거가 없고,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정현숙, 1992), 사각회전방법(Oblique Rotation)인 Promax를 실행하였다.

본 과정을 통해 2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두 개 문항(43번, 67번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2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5.1%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인을 구성하는 17개의 문항은 자녀의 초등 학교 입학 이후 부가된 학부모 역할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어려움을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요인을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가 부담스럽다’,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와 같은 것이 있다.

<표3>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분석

문항번호	요인1 ³⁾	요인2 ⁴⁾	h ²
50	.73	-.10	.69
52	.71	-.11	.52
49	.71	-.10	.66
53	.70	-.11	.49
57	.62	-.01	.46
55	.61	-.06	.42
64	.55	.07	.39
61	.54	.12	.42
54	.52	.12	.34
51	.51	-.01	.33
65	.49	.04	.33
59	.49	.18	.35
62	.48	.22	.38
44	.48	.10	.31
58	.45	.05	.25
56	.45	.18	.31
66	.41	-.06	.23
38	.07	.71	.56
17	.03	.66	.40
13	-.23	.61	.36
37	.08	.60	.49
41	.10	.58	.36
14	-.08	.57	.37
31	.13	.49	.29
Eigen값	6.32	2.17	
설명변량	.65	.22	
누가변량	.65	.87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1	1.00		
요인2	.33	1.00	

주3) 요인1 :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주4) 요인2 :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연구자가 초기에 지적한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적 가치와 높은 학구열로 표현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학교 입학과 더불어 부가되는 학부모역할은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그 어려움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2.3%를 설명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시간적 투자와 에너지를 요구하는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해 부모가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

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개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등이 있다.

이렇듯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추출된 두 요인은 선행 측정도구에서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적합하게 잘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된 24문항에 대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Goldberg(1980)의 GHQ와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4). GHQ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1점)’의 4점 Likert 척도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도구는 기존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들의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고, 정상적인 인구 집단보다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본 도구는 선행연구(Goldberg & Huxley, 1980)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되었다(장세진, 1992, 재인용).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평상시 하는 일에 대한 집중곤란,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결정능력의 어려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적 증상이나 행동상의 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른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가 아닌 GHQ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측정도구가 숫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구들은 학동기 자녀라는 발달적 특성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표4> 양육스트레스 및 하위요인과 GHQ 간의 상관계수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GHQ	.38***	.28***	.41***

*** p<.001

두 번째 이유는 부모역할의 심리적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부모역할(Broman, 1991)이므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다.

<표4>에서 보듯이 양육스트레스 24문항의 총점과 GHQ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41(p<.001)이며, 각 하위 영역별 상관계수에 있어서도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과는 .38(p<.001),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은 .28(p<.001)로 나타나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신뢰도

이상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24문항의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0에서 .89까지 분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표5).

<표5> 양육스트레스 및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

7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Cronbach α	.89	.80	.89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외국의 원 도구를 그대로 번안하였거나, 취학전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입학이라는 중요한 전환과 함께 요구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그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선행 측정도구(김기현·강희경, 1997; Abidin, 1990)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67문항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67문항의 문항양호도와 구성타당도, 공인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에 협조를 의뢰하여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응답한 총 1,227부의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26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의 24문항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65%를 설명하는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은 자녀의 학교입학으로 인해 생겨난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정립, 자녀와 관련된 구체적인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대한 우려, 또래 관계 및 사교육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요인은 높은 학구열과 독특한 가족주의로 설명되어지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학업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한국 가족문화에 있어 자녀의 학교입학은 부모에게 새로운 학부모역할을 부가시킴으로써 자녀양육에 있어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의 22%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로, 부모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 투자로 인해 부모가 개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겪는 구체적인 어려

움을 보여준다. 학동기는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부모의 보살핌과 주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발달특성상 부모의 부단한 양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는 개인적인 생활-예를 들면, 개인적 시간을 갖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연구자의 초기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공인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규명해줌으로써, 학동기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사회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의 실재인으로 부각된 아버지의 역할을 반영해주는 양육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참여시킴으로써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상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본 도구는 또한 가족발달적 측면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환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을 제시하므로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도구는 앞으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성별과 연령, 출생 순위 등과 같은 일반적 배경 변인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갖는 심리적 특성 변인 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는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나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14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3월 26일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2), 21-37.
- 김경신·김명자·박혜인·유영주·유은희·윤종희·이미숙(1994). 한국 가족의 교육열과 대학입시 ; 가족적 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61-178.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인숙(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 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세진(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부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현숙(1992). 가족연구에서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 공변량구조 분석의 이용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4, 99-114.
- 안지연(199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일 연구-정상아 가족과 자폐아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기영(1998).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인식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병옥(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경아(1991). 도시부부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서울시 부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rkey, K, M., & Hanson, S, M.(1991). *Pocket Guide to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 Mosby-Year Book.
- Broman, C L.(1991). Gender, Work-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09-520.
- Goldberg, D. P. (1980).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 The Pathway to Psychiatric Care*. London : Travistock.
- Laster, J. F. (1981). Toward and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19.
- Menaghan, E, G. (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6.

<부록>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50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5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 대우할까봐 걱정된다
	49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53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57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55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64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61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54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51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65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59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62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4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58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5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66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38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17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13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 소비된다
	37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다
	41	아이 때문에 나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14	대개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31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이 어려워졌다